

“신라 원광법사 진골출신 화랑”

김태식 씨 ‘화랑세기 필사본’ 내용 소개

1989년 발견 이후 진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화랑세기> 필사본이 세속오계를 설한 원광 법사의 행적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를 펴내 필사본이 진짜일 가능성에 힘을 보탰던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문화재·학술 전문기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화랑세기> 필사본은 원광을 ‘신국의 대성인(神國之大聖)’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원광의 가계와 출생연도, 행적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 하반기 출간될 2권에 이러한 내용을 수록할 예정이다.

■ ‘신국의 대성인’ 화랑의 우두머리였던 풍월주 32명에 대한 전기를 담고 있는 <화랑세기> 필사본에는 승려인 원광 법사를 ‘신국의 대성인’이라고 평하는 표현이 3~4군데나 나온다. 이는 원광이 <화

랑세기>를 쓴 김대문의 증조할아버지인 보리(12세 풍월주의 형이기 때문. 그러나 김 씨는 “원광 법사가 당시 신라에서 대성인으로 추앙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가문 사람이라고 함부로 신국의 대성인 운하는 말을 할 수 있었느냐”며 “그 동안 세속오계에 한정됐던 원광의 새로운



◇1989년 발견 이후 진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화랑세기’ 필사본(사진제공=연합뉴스).

법사는 처음엔 화랑이었고 도교 수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 출생의 비밀 <속고승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수이전> 등은 원광 법사의 성을 설치 또는 박씨로 다르게 기록할 뿐 아니라 생몰 연대도 차이가 난다. 필사본에는 4세 풍

월주였던 이화랑과 진흥왕의 왕비였던 숙명공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원광 법사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원광 법사의 속성은 ‘김 씨’가 된다. 또 숙명공주와 이화랑의 사통 사실을 안 진흥왕은 566년 숙명공주와의 사이에서 난 정숙태자를 폐위시키고 동륜을 태자로 삼는데, 이 때가 곧

원광 법사의 출생연도다. 566년은 <삼국유사>에 출가 연대로 나와 있는 해다. 그러나 <화랑세기> 필사본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 불교사학자들의 반응은 아직 회의적이다. 최연식(서울대 강사) 씨는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만 신뢰할 만 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최 씨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인 <속고승전> ‘해민전’에 보면 해민이 587년 신라 광사(공 원광)로부터 <성실론>을 배웠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필사본에 의하면 이 때는 원광이 화랑 내부 갈등에 관여했던 시기(585~588)”라고 지적했다.

김복순 교수(동국대 역사철학부)는 “아직 자료로 인용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원광 법사가 유두품(설씨)인지 진골 출신(박씨 혹은 김씨)인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기록도 나와 있어 검토해볼 내용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가계·출생·행적 등 흥미로운 사실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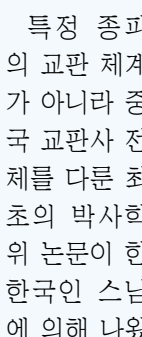
사학계 “신뢰 미지수” “자료로 인용 안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원광은 화랑이었다 10세 풍월주를 지낸 미생(美生) 열전’에는 당시 화랑도가 5개파로 분열됐는데, 그 중 한 파가 “정숙태자를 풍월주로 세우고 원광을 서열 2위인 부제(副帝)로 삼으려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를 근거로 김 씨는 “원광

월주였던 이화랑과 진흥왕의 왕비였던 숙명공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원광 법사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원광 법사의 속성은 ‘김 씨’가 된다. 또 숙명공주와 이화랑의 사통 사실을 안 진흥왕은 566년 숙명공주와의 사이에서 난 정숙태자를 폐위시키고 동륜을 태자로 삼는데, 이 때가 곧

성원스님, 위스콘신대서



특정 종파의 교판 체계가 아니라 중국 교판사 전체를 다룬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 한 한국인 스님에 의해 나왔

에 의해 대·소승 경전과 논서들이 한데 섞여 번역·소개되자 이를 정리하고 체계화해야 할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그러나 특정 종파의 근본 경전을 최상의 위치에 놓으려는 종파주의적 흐름으로 변질했다는 게 기존 견해였다.

하지만 성원 스님은 “중국 불교의 교판 체계에는 종파주의적 교판과 함께 종파성을 띠지 않은 통합주의적 교판의 두 유형이 있었다”며 그 계통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스님은 구마라집(334~412)에 의해

한국 최초 교판사적 체계 연구

교판 계보 공식적·통시적 검토

다. 최근 미국 위스콘신대학 아시아언어문화학과에서 ‘중국 불교 교판 사상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성원(성사) 스님이 그 주인공.

5세기경 시작돼 9세기경 일단락된 교판의 계보를 공식적, 통시적으로 검토한 이번 논문에서 성원 스님은 종래 일본이나 서구학자들의 견해를 반박했다.

교판(敎判) 또는 교상판서(敎相判釋)이란 불교 경전이나 교리의 분류 체계로, 5세기경 서역 출신 승려 구마라집

시작된 통합주의적 교판 체계가 승에(352~436)와 보디루치(?~527), 해원(523~592), 길장(549~623)을 거쳐 원호(617~686)로 계승되었음을 증명해 보이며 “중국 불교에서 종파는 서구 기독교와 일본 불교의 유행과 전적으로 다르며 ‘계통’의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원 스님은 1989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92년 서울대에서 ‘법장 사상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권형진 기자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절(1)

목탑을 중심으로 삼고

372년 전진(前秦)의 왕 부견(苻堅)은 사신과 순도(順道) 스님을 통해 불상과 경문을 고구려에 보내왔다. 3년 뒤인 375년 2월에 우리 나라의 첫 절인 초문사(僧門寺)가 세워지고 순도 스님이 이 절을 맡았다. 또한 이불란사(伊弗蘭寺)를 함께 지었는데 이는 동진(東晉)에서 온 스님 아도(阿道)가 맡았다. 이것이 고구려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불교의 시작이다. 그런데 초문사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있다. 중국의 문헌인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을 보면 초문사가 성문사(省門寺)로 표기되어 있는데 고구려왕이 순도와 사신을 감격적으로 맞이한 성문(省門)을 절로 만들었다고 한다. 초(省)자와 성(省)자는 획 하나 차이가 나니 옮겨 적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다. 아무튼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고구려

(定陵)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이 절터에서 출토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릉사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규모가 고구려 사찰 가운데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짜임새도 웅장하다. 평면을 처음 보면 복잡하다는 인상을 받지만, 차분히 살펴보면 가운데 구역에서 고구려 절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중앙에 남북방향으로 문, 탑과 금당, 그리고 강당이 줄지어 있다. 탑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고 금당(金堂)은 몸에서 황금빛이 나는 금인(金人), 즉 부처님을 모신 건물로 가리킨다. 그런데 가운데 8각형 목탑을 세 개의 금당이 북·동·서쪽 방향에서 둘러싸고 있다. 마치 금당들이 탑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치를 학자들은 ‘1탑 3금당식’이라고 부른다. 1



◇복원된 정릉사의 현재 모습. 중앙에 8각형의 웅장한 목탑 대신 작은 석탑이 놓여 있다.

중앙 8각목탑 중심 동·서·북쪽에 금당 전형적 1탑 3금당식... 탑 신앙 중시한 듯

최초의 절은 관청을 고쳐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도가 고구려에서 신라에 들어가 처음 지은 절도 당시의 검소한 풍속에 따라 모옥(茅屋), 즉 초가집이었다고 한다. 절과 궁궐은 기와집으로 짓는 것이 상례지만 초기에는 사장이 여의치 못했다. 사찰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춘 때는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위해 393년에 건립한 아홉 개의 절(九寺)부터일 것이다.

평양에 있는 정릉사(定陵寺)는 아홉 개 절 중의 하나이거나 아니면 5세기 초에 세운 절로 추정된다. 북한의 학자들은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의 능을 평양으로 옮겼고 그 능을 지키기 위해 이 절을 세운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능을 지키는 절이라는 의미의 ‘정릉

탑 3금당식 배치는 고구려 사찰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구조인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고구려시대에는 불상신앙보다 탑신앙을 좀더 중시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의 구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건물들이 좌우로 날개를 펴고 있다. 좌우의 구역에 있는 건물들은 후대에 세워진 것이다.

이 사찰은 최근에 복원되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운데 목탑을 작은 석탑으로 대체하였다. 어떤 사정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북한에도 목탑을 복원할 만한 기술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양이다. 웅장한 목탑이 금당들의 호위를 받고 하늘로 높이 치솟아 원래의 그 위용을 느낄 수 있을 날을 기대하여 본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自燈明 法燈明”의 ‘燈明’은 ‘점(귀의처)’으로 번역해야

마성스님, ‘등불’은 초월적 자아로 오해 소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그 유명한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이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는 이 말은 “그 어떤 절대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교의 특징을 한 마디로 압축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불교 관계 전문서적은 물론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등명 법등명’이란 표현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8일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 제16차 학술발표회에서 ‘자등명 법등명의 번역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비판 없이 써온 ‘등불(燈明)’이라는 한역은 장소(處)를 뜻하는 ‘섬(洲)’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리어 ‘dipa’의 번역 사례를 한역

대상경은 물론 현대 영어·독일어·일본어·한글 역과 꼼꼼히 비교한 마성 스님은 “팔리어 주석서나 붓다고사의 주석서 등 고주석서에 충실한 학자들은 대부분 ‘dipa’를 섬(洲, island)으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붓다가 최초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팔리어 장경의 상응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섬, 동굴, 피난처, 귀의처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모두 구체적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들로 ‘dipa’가 추상적 의미의 ‘등불’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마성 스님의 설명이다.

마성 스님은 “단순한 번역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불로 번역할 경우 무아(無我) 아닌 초월적 자아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철학적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와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팔모주름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팔모조립등



중 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경기도 하남시 준곡동 180-1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